

‘침체의 늪’ 전남 전통시장 정밀 실태조사한다

전남도,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국비 운영 등 점검

온라인 쇼핑 문화와 실시간 배송 시스템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남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가 시작된다.

특히 정부가 수십년 간 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투입했던 국비 지원 정책의 운영 실태와 대형마트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와 상인 소득 급감 등을 분석, 향후 경영 개선 방안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관심이 쏠린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하고 최근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전남 22개 시·군에는 114개의 전통시장, 39개소 상점가(11개 시·군), 9개 골목형 상점가(7개 시·군) 등이 운영중으로, 전통시장 내 점포수만 6900여개에 달한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7월까지 1년 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유형·형태별 실태 조사 ▲전시장·상점가 영업형태로 인한 매출 급감 요인 분석 ▲정부 국비 지원 정책에 따른 운영 실태 ▲대형마트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상인 소득 급감 등 운영 실태 ▲고객·상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을 위해 청년몰, 각종 전시·박람회 등을 지원한 효과와 드러난 문제점, 시·군 별로 지원한 온라인 판매 운영 실태 등도 꼼꼼히 분석, 어떤 효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 경영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아닌 일률적인 지원 정책이 실제 시장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들이 인근 대형마트나 온라인 판매 등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분석하기 위한 연령·계층별 이용객 변화 추이, 업종별 매출 변화, 점포 증감, 공실률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여기에 기존 정부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정책 우수사례와 해외 및 타 지역 전

통시장의 우수사례, 장·단점을 살펴 실효성 높은 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먹거리·볼거리 특화시장이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을 활용한 관광시장(시티투어) 육성방안 등도 담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정부·지자체·민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장 재건축·안전관리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경제의 핵심인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산 전복 드세요 도, 소비 활성화 상생 협약

전남도는 지난 2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와 전복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 조합원들이 전남산 전복 구매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남산 전복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전복 사주기 운동’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예비비를 포함한 18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수산물 소비촉진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복 생산어가에 도움이 되도록 유통환경 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관광두레, 대기업 리브콜...로컬 상품 ‘힙하다 힙해’

여수 주민사업체 섬버리 폴리마켓 10일까지 12개 업체 상품 판매

전남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로컬 상품이 대기업의 리브콜을 받으며, 휴가철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힙한 전남 로컬 관광상품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육성한 주민사업체 여수 ‘섬버리’가 오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여수 한화리조트 벨메르 4층과 야외에서 팝업 형태의 ‘섬버리마켓’〈사진〉을 운영한다. ‘섬버리’는 섬(some)과 잔치(boree)의 합성어로 ‘섬에서 시작되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섬(some)이 많은 여수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소개하는 로컬 브랜딩 업체이다.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된 ‘섬버리마켓’은 여수의 갓, 김, 건어물 등 지역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 로컬푸드 팝업스토어와 다육 식물, 핸드메이드제품 등 로컬 폴리마켓이 큰 인기를 끌며 판매되는 흥행을 기록했다. 전남관광재단과 섬버리는 리브콜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전남상품을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 갓김치와 짜파게티를 결합한 ‘갓파게티’, 여수 건어물과 로컬 맥주를 결합한 식음료 상품을 선보여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섬버리마켓’의 폴리마켓 소식이 알려지자 농심에서 시식행사 시 제공되는 짜파게티, 너구리를 전액 후원하는 등 대기업과 로컬기업간 공동상품 기획의 가능성을 열었다. 여수 농가 갓김치와 짜파게티의 만남 ‘갓파게티’와 여름철 별미 꼬들배기 김치와 너구리 조합 ‘꼬들구리’는 시식 이벤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관련 상품이 완판되며 추가 주문도 쇄도했다.

또 여수풍경 색칠 체험과 행운의 뽑기, 전복껍데기에 놓이는 ‘여수버디 마그넷 만들기’를 무료

제공하며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수 돌산 갓을 활용한 갓김치, 갓시래기국밥, 갓떡갈비는 금오도의 방풍, 돌계를 활용한 방풍수제초콜릿, 방풍막걸리, 간장돌계장과 함께 신선한 맛과 풍미를 살린 음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섬버리 마켓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판로확장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전국 2위

여주소방서, 장관 표창도

전남소방본부가 ‘2023-2024년 추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전국 19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겨울철(2023년 11월-2024년 2월) 추진된 특정 소방대

상물 자율안전관리, 대형화재 예방 강화,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 등 6대 전략과 시·도별 특수 시책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소방은 18개 시·도 중 전국 2위로 선정됐다. 여주소방서는 전국 230개 소방서 중 2위로 평가돼 장관표창을 받는다.

전남소방의 경우 공동주택 선제적 예방활동, 주

민 자율안전관리 강화, 화목보일러 청소 서비스, 피난안전관리 홍보 추진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인명피해가 44% 대폭 감소했다.

여주소방서는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 증강현실(AR) 필터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안전한 여름 휴가 되세요

짚라인 등 하강레포츠시설 일제 점검

도 합동점검반 13일까지

전남도가 오는 13일까지 15일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하강레포츠시설(짚라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시·군, 민간 전문가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보성 제암산휴양림 전용짚라인, 보성 제암산휴양림 에코짚라인, 강진 가우도짚 트랙, 완도타워스카이, 완도청소년수련원 5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상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일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구조(기초·기둥·보·슬래브 등)의 균열, 변형손상, 파손 등 이상 유무 ▲안전조기, 안전고리 등 안전 장비의 변형, 손상 유무 ▲탑승기준 안내표지 부착, 이용자 및 운영자 안전교육 실시 유무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계도 조치하고, 절대공기, 예산 수반 등으로 인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 신속히 안전조치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관광지 음식점 원산지 특별 단속

도, 23일까지 식품 판매점 등

관광객들이 물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전남도는 오는 23일까지 4주 간 22개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나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소

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중대 위반사항은 관원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오늘까지 가루쌀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전남도가 오는 7일까지 가루쌀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남도 가루쌀 재배면적(3200ha)은 전국 8000ha의 38%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재해보험 신청 대상은 가루쌀을 재배하는 생산

단지의 농가, 종자원, 채종단지다. 가루쌀은 수발이 위험성이 높아, 생산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의 가루쌀 재배필지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의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7일까지 신분증과 농지대장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